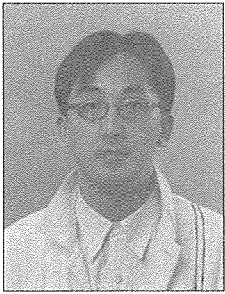


# 5일간의 여행

백승엽/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의 대표



‘치과 올림픽’이라는 경쾌한 캐치프레이즈와 전세계의 치과인을 상징하는 멋진 로고로 시작되었던 아름다운 축제, <FDI 1997 SEOUL>이 진한 감동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가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지의 세계로 달콤한 여

행을 다녀온 듯한 느낌으로 기억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어찌됐든 이번에 다녀온 ‘5일간의 여행’은 분명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 행사 첫날의 인상은 ‘대단하다’는 말로 압축 특히식 없는 것이 아쉬워

축제의 첫날, 대회장이었던 KOEX와 인터콘티넨탈 호텔 일대를 뒤덮은 초록색 가방의 물결에 합류하면서부터 나의 여행은 시작되었다. 그날 느꼈던 첫인상을 표현하자면 ‘대단하다’라는 하나의 단어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엄청나게 많은 수의 참가자들과 또한 엄청난 숫자의 자원봉사 진행요원들, 9개의 룸에서 일제히 시작된 학술강연 일정,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자재 전시장. 이 모든 것들은 일개 치과의사에 불과한(?) 나를 압도하기에 충분하였으며 나는 그 속에서 그저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날밤에 있었던 개회식 및 환영연은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답게 웅대하면서도 낭만적인 분위기속에 아름다운 초가을의 정취를 듬뿍 느끼게 해주었다. 특히 스카우트 소년소녀들이 세계 각국의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로울콜(roll call) 순서에서는 열광하는 전세계 치과인들의 함성이 매우 뜨거웠으며, 이러한 함성은 세계의 대화합을 염원하는 메아리가 되어 무척이나 감동적인 장면들을 연출시켰던 것으로 기억된다.

첫날 이후의 일정은 학술활동을 중심으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속에 진행되었다. 학술강연, 자유연제 및 비디오 발표, 포스터 전시 등이 뜨거운 관심과 참여속에 큰 차질없이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러나 폐회식 등의 행사없이 이 축제가 마무리되었던 관계로, 한껏 고조되었던 열기를 잔잔하게 되새겨주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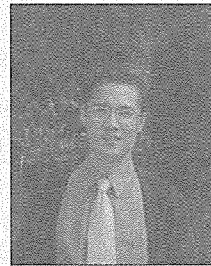
## 국내치과인의 결속도모와 세계 치과계에 한국의 위상 높여

### INTERVIEW

파주군 교하면 보건지소

글/송유리 기자

### 국적과 나이



실내에 들어와서는 신을 벗어야 한다는 말에 양말까지 벗으려 했을만큼 동양문화에 대한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었던 알바로(Alvaro Veteneur)씨는 열흘간의 일정을 마친 지난 9월 8일,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한아름 안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행히도 알바로씨는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경험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안내를 한 저로서도 마음맞는 상대였지요.”

FDI 행사기간중 알바로씨를 홈스테이 게스트로 맞아 아껴두었던 휴가를 뜻있게 보낸 이상언(파주군 교하면 보건지소)씨는 2박3일 전시간을 그와 함께 보냈을 뿐 아니라 그가 또다른 홈스테이로 거처를 옮긴 후에도 관광가이드이자 좋은 친구로 동행했다.

살아있는 한국을 보고싶다는 알바로씨의 바람대로 생명력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고궁이나 남산 등 박제된 관광자원으로는 역부족이었다며 아쉬움을 표한 그는 국적없는 한국문화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한다.

“인사동에 갔을 때 한국음악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왜 한국

이번 'FDI 1997 SEOUL'을 되돌아 생각해보면, 준비과정 중에 나타났던 다소간의 불협화음과 각종 행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도드라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약간의 씩씩함을 남기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몇가지의 뜻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우선 이번 행사가 단순히 전세계 치과인들의 우의를 다지는 행사에만 그치는게 아니라 국내 치과인들의 결속을 도모하고 나아가 세계의 치과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학술대회 등의 유치를 통해서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기울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시의적절한 금연운동 통한 대국민홍보효과

그 다음으로, 이번 행사를 통하여 적지않은 대국민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

다. 특히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가릴 것 없이 기업의 이미지 광고에 주력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회기간 내내 대대적인 금연운동을 벌임으로써 여러 언론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호응을 얻어낸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홍보효과는 구강보건전담행정부서 설치 및 구강보건법 제정 등을 위한 최근의 치과계 주력활동 영역에까지 커다란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구강보건의료사업이 강화되고 우리 사회내에서 치과계의 역할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확신한다.

## 외국인 참가자와 국내인과의 '만남의 장' 아쉬워

마지막으로, 올림픽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부수적으로 관광수익을 올리는 데에도 한몫 함으로써, 민간외교부문에서 적지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 외국인 참가자들과 내국인 참가자들간에 보다 친밀한 교류를 가질 수 있는 '만남의 장'이 없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만남의 장'을 만들어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 "Great! That's all."

'FDI 1997 SEOUL'이 끝난지 보름이 넘어가고 있으나 아직껏 그 여운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이것이 나혼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만 냉정해져야 할 시기라고 다짐하고 있다. 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해결해야할 숙제가 아직도 산더미처럼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어찌보면 'FDI 1997 SEOUL'보다 훨씬 더 힘들고 먼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코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여행이다. 그것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치과 의사이기 때문이다. 'FDI 1997 SEOUL'에 대한 기억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새로운 여행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끝으로, 'FDI 1997 SEOUL'이 어떠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한 외국의 참가자의 대답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Great! That's all."

## 이상언

### 초월한 우정 나뉘

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음악을 즐기지 않는지 의아해 하는 그에게 저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젊은이로서 할 말이 없다군요."

"친구가 FDI 홍보본부에서 일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저도 뭔가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마침 홈스테이 신청자가 적다기에 여러 가지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과의 교류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도 있었다. 그런 만큼 각종 진료체계, 의료보험문제, 그 사회에서의 치과의사의 역할과 지위, 국민의식 등에 대해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느낀 바도 크다고 한다.

"일주일에 사흘, 하루 15명의 환자를 본다고 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알바로씨의 말을 듣고 그 철저한 직업정신에 놀랐습니다. 또 그리 길지 않은 여행중에 입을 책을 잔뜩 가져온 그를 보고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치과의사의 길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플로리다로 돌아간 알바로씨는 우리나라에서는 맛볼 수 없는 진짜 콜롬비아 커피와 함께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내년 여름휴가때 꼭 플로리다를 찾아 달라는 알바로씨의 초청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 그는, 국적과 나이를 초월한 우정의 교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21세기의 '세계인'이었다.